

## 전화번호 업무제안 하이텔에 올린내용

# 3173 g7777ga (g7777ga)

한국통신 직원여러분 보세요! 06/28 08:31 49line

전화번호 지정규정에 애매모호한 조항이 있어 누구나 해석하기 쉬운 명확하고 쉬운 내용으로 고치자는 업무제안을 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

※ 참고 95년 2월 한국통신 사보 72~74p에 나와 있음. 꼭 읽어 보세요.

※ 94년 12월 6일 상주국에서 업무제안(불채택)

불채택 이유: 누구나 원한다고 하여 신호번호를 부여할 시 현재 3개번호 중 1개를 택일하는 방법보다 혼란과 부조리를 초래할 소지가 많으며, 국장 책임하에 사업과 연계하여 수입증대를 기할 수 있을 때 부여하도록 하는 현재도를 확대 발전시킴이 타당하겠음. 신선했던 발상이 아니어서 아쉽게 생각함.

※ 95년 2월 한국통신 사보에 실리고 4월 10일 재심사(채택)

채택 이유: 일반전화 이용약관 제16조 4항의 모호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음.

현재 3개의 번호 중 1개를 택일하는 전산처리 방식에서 예외규정으로 둔 전화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수동번호 부여는 가능토록 된 것이 애매모호하다는 주장은 타당하며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95년 6월 26일 대구본부서 심사결과 통보(불채택)

불채택 이유: 전화번호 부여방법 개선에 대하여는 본사에서 계속 검토 중에 있으며, 전화번호 부여시 종전의 일반전화 이용약관 제16조 ②항 4호 '그밖에 공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화번호' 조항은 공사 수입증대, 대 고객 서비스 향상 등의 경우 전화국장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이를, 통화량이 많은 것, 국번이 다를 경우 동일번호 부여 등으로 번호부여 방법을 획일적으로 지정할 경우, 업무추진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95. 4. 21부터 이 조항은 삭제되었음.

따라서 본 제안은 불채택함.

※ 현재 제안심사 규정은 현역에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심사결과 본인통보  
지역사업본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본인통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싫어하고...' 직장을 사랑하는 젊은이는 회사에

서 정해진 규칙을 지키려고 합니다. 한국통신은 외부에서 좋은 직장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관료주의에서 탈피해 사규를 지키고 상식이 통하는 회사로 만듭시다.

상주전화국 임그루

※.참고 95년 노사분규 끝나지 않아 많은 항의전화 걸려왔음. 높은신 분들은 나만 보면 인상이 일그러짐